

‘코로나 방역·경제살리기’ 두 마리 토끼 잡은 클린강원패스포트

개인 이용자 30만명...1만개 기관·업소 참여 참여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이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·보급한 강원형 전자출입명부 ‘클린강원패스포트’가 인증 포인트 시행을 통해 ‘방역과 경제’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.

강원도에 따르면 현재(11월 15일 기준)까지 도내 클린강원패스포트의 개인 이용자는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. 지난 8월 말 ‘인증 포인트’ 시행 이후 3배로 이용자가 급증한 셈이다.

클린강원패스포트 가맹점도 총 1만개소가 참여하고 있다.

현재 도청을 비롯해 각 시군, 경찰서, 고용노동부, 우체국, 출입국관리사무소, 정부종합청사 등 31개 공공기관과 도내 대부분의 대학교·대학병원, 호텔·리조트 등지에서 클린강원패스포트를 이용 중이다. 연말까지 1만 2천개 업소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인증 포인트는 사용자가 업소나 시설을 방문할 때 클린강원패스포트 사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. 사용자는 100점, 해당 업소는 40점을 지급한다. 적립한 포인트는 1점당 1원으로 강원상품권으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. 게다가 사용자는 누적 금액이 월 최고 3천점, 업소의 경우 월 최대 20만점 획득이 가능하다. 이용 실적에 따라 사실상 강원도형 재난지원금으로서 기능하는 셈이다. 특히 도는 클린강원패스포트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내 병의원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문진 지원 기능을 탑재했다. 또 군장병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 군부대와도 협의해 접경지역 내 상권 등에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.

김창규 강원도 관광마케팅 과장은 “방역은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”며 “클린강원패스포트 이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”고 당부했다.

클린강원패스포트 앱 설치 후에는 특정 장소를 입장할 때마다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‘NFC’(Near Field Communication·근거리 무선통신) 태그 방식만으로 쉽게 입장이 가능하다.

업소 입장 때마다 앱을 찾아 열어서 인증해야 하는 KI-PASS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도 교통카드 방식과 같이 두 번의 NFC 태그만으로 쉽게 입장할 수 있다.

강원도는 코로나19의 성공적 차단을 위해 도내 실내 위주의 기관, 업소 등에 클린강원패스포트 설치를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.



1



2

1, 2 클린강원패스포트 가맹점

또 시군과 협력, 도민들이 관련 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 이 밖에 업주 및 개인의 자율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증 포인트제를 운용해 지원한다. ●

코로나19 예방?

이제는 짹자!



불편한 수기작성 그만!
더 간편해진 NFC는 2번의 태그로
2초만에 편하게 입장 가능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「강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」

‘클린강원 패스포트’



어플 설치하고 입장할때마다 포인트도 적립 받으세요!

가입 문의 : 033-249-5733, 5734, 5736

입장할때마다
포인트 적립까지!



- * 업주 회당 40포인트씩 월 최대 20만포인트
- * 이용자 회당 100포인트씩 월 최대 3천포인트
- * 모바일강원상품권으로 교환가능
- ※ 모범가맹점(개인포함) 포인트 추가 지급
(1~100위, 3만~10만 포인트)

